타원형 초상화

The Oval Portrait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42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dgar Allan Poe, "The Oval Portrait" (1842)

저자

에드거 앨런 포 (Edgar Allan Poe, 1809–1849)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147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하인이 무모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 성채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내가 차가운 밤공기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곳은 아펜니노 산맥 사이에서 오랫동안 위엄을 과시해 온, 어둠과 웅장함이 뒤섞인 거대한 건축물이었다. 그 모습은 실재로도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래드클리프 부인의 소설 속 묘사만큼이나 압도적이었다. 겉보기에는 아주 최근에, 그것도 일시적으로 버려진 듯한 상태였다.

우리는 성 안에서 가장 작고 가구도 소박한 방 하나를 찾아 자리를 잡았다. 그 방은 건물의 외딴 탑 부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실내 장식은 화려했으나 낡고 해져 있었으며 고풍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벽면은 태피스트리로 덮여 있었고, 온갖 형태의 문장(紋章) 장식품들이 즐비했다. 그뿐만 아니라 화려한 황금색 아라베스크 문양의 액자에 담긴, 생동감 넘치는 현대 회화 작품들도 이례적일 만큼 많이 걸려 있었다.

성채 특유의 기묘한 구조 때문에 벽면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숨겨진 공간마다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아마도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한 탓인지 나는 그 그림들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나는 페드로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이미 밤이 깊었으니 방의 두꺼운 덧창을 닫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커다란 촛대들에 불을 밝히라고 했다. 또한 침대를 감싸고 있는 검은 벨벳 커튼을 넓게 젖혀 놓으라고도 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요구한 이유는, 비록 잠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그림들을 번갈아 감상하거나, 베개 위에서 발견한 작은 책을 읽

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책은 이 그림들을 비평하고 설명해 놓은 책이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책을 읽었다. 그리고 경건하고도 몰입한 마음으로 그 글귀들을 눈에 담았다.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덧 깊은 밤이 찾아왔다. 촛대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잠든 하인을 깨우고 싶지 않아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책 위로 빛이 더 환하게 쏟아지도록 촛대를 옮겨 놓았다.

하지만 그 행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왔다. 수많은 촛불의 빛이—방 안에는 촛불이 아주 많았다—침대 기둥 하나에 가려져 줄곧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던 방 안의 한 구석을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 덕분에 나는 이전까지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그림 하나를 선명한 빛 아래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은 막 여인으로 피어나기 시작한 한 소녀의 초상화였다. 나는 서둘러 그림을 훑어본 뒤 눈을 감아버렸다. 왜 그랬는지, 처음에는 나 자신조차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눈을 감은 채로, 나는 왜 눈을 감았는지 그 이유를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그것은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한 충동적인 움직임이었다. 내 눈이 나를 속인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으며, 섣부른 상상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고 확실하게 다시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그림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의심할 수도 없었고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다. 캔버스 위로 촛불이 처음 번쩍이며 비쳤을 때,

내 감각을 잠식하던 몽롱한 혼미함은 순식간에 흩어졌다. 그 빛은 나를 곧장 깨어 있는 현실 속으로 불러들였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 초상화는 한 젊은 소녀의 모습이었다. 기술적으로는 '비네트(vignette)' 기법이라 부르는 방식으로 그려진, 머리와 어깨까지만 담긴 그림이었다. 술리(Sully)가 즐겨 그리던 초상화 양식과 매우 흡사했다. 팔과 가슴, 심지어 빛나는 머리카락 끝자락까지도 배경이 되는 모호하면서도 깊은 그림자 속으로 감쪽같이 스며들어 있었다. 액자는 타원형이었으며, 무어 양식의 정교한 금실 세공과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예술품으로서 이보다 더 경이로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를 그토록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뒤흔든 것은, 결코 이 작품의 완성도나 얼굴에 깃든 불멸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반쯤 잠들었던 내 상상력이 착각을 일으켜, 그림 속 얼굴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오해했을 리도 만무했다. 그림의 독특한 구도와 비네트 기법, 그리고 액자의 형태를 보는 순간, 그런 착각은 즉시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런 엉뚱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틈조차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 점들을 깊이 곱씹으며, 한 시간쯤 반쯤 앉은 채로 혹은 반쯤 기댄 자세로 초상화에 시선을 고정했다. 마침내 그림이 주는 효과의 진정한 비밀을 깨닫고 나서야, 나는 침대 위로 몸을 눕혔다. 그림이 내게 건 마법의 정체는 바로 표정의 지독한 생동감이었다. 처음에는 깜짝 놀

라게 하더니, 결국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압도하며 공포에 질리게 한 바로 그 생동감 말이다.

나는 깊고 경건한 경외심을 느끼며 촛대를 원래 자리에 놓았다. 나를 이토록 격하게 동요시킨 원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그림과 그 역사를 다룬 책을 간절히 찾았다. 타원형 초상화가 기록된 페이지를 펼치자, 다음과 같은 모호하고 기묘한 문장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처녀였으며, 그 미모만큼이나 생기가 넘치는 이였다. 하지만 화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와 결혼한 것은 불행한 운명이었다. 화가는 열정적이고 학구적이며 엄격한 성격이었고, 이미 예술이라는 이름의 신부를 맞이한 상태였다. 반면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처녀였다. 늘 미소와 웃음이 가득했고, 어린 새끼 사슴처럼 천진난만했다. 만물을 사랑하고 아꼈으나, 오직 자신의 연인을 빼앗아 가는 라이벌인 예술만은 미워했다. 연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팔레트와 붓, 그리고 그 외의 불길한 도구들만을 두려워했을 뿐이다.

그러니 화가가 어린 신부의 모습까지 초상화로 남기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그 상황은 참으로 가혹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겸손하고 순종적이었다. 빛이 머리 위에서 창백한 캔버스 위로만 뚝뚝 떨어지는, 어둡고 높은 탑의 방에서 그녀는 몇 주 동안이나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화가는 자신의 작업에 도취되어 있었다. 작업은 시간 단위로, 그리고 날마다 계속되었다. 그는 열정적이고 거칠며 변덕스러운 데다 환상에 빠져 사느라 현실을 놓치곤 하는 남자였다. 그

래서 그는 그 외딴 탑 안으로 스며드는 기괴한 빛이 신부의 건강과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화가를 제외한 모든 이의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계속 미소 지었다. 명성이 자자한 화가가 자신의 작업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쏟고 있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녀를 그리기 위해, 그는 매일같이 기운을 잃고 약해져 가는 아내를 두고 밤낮없이 작업에 매달렸다. 참으로 놀랍게도, 초상화를 본 이들은 그 닮은꼴을 두고 경이로운 기적이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화가의 뛰어난 실력을 증명하는 증거이자, 그가 그린 여인을 향한 깊은 사랑의 증거이기도 했다.

마침내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아무도 탑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화가가 작업의 열기에 사로잡혀 눈을 캔버스에서 떼지 못했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조차 잊었기 때문이다. 그는 캔버스 위에 칠하는 색채들이 곁에 앉은 아내의 뺨에서 뽑아낸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입술에 붓질 한 번과 눈에 색을 입히는 일만 남았을 때, 여인의 생명력은 등잔 기름받이 속의 불꽃처럼 다시 한 번 타올랐다.

마침내 붓이 움직였고 색이 입혀졌다. 화가는 자신이 완성한 작품 앞에서 잠시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가 작품을 응시하던 중 몸을 떨며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경악한 표정으로 "이것은 진정 생명 그 자체로구나!"라고 크게 외치며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죽어 있었다.